

프랑스의 공장 이전과 재이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황재훈 (프랑스 파리 13대학 사법 박사과정)

■ 머리말

2017년 4월 26일 파리 북부에 위치한 아미앵(Amiens)의 시위현장에서는 뜨거운 환성이 터져나왔다. 바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계 기업 월풀(Whirlpool)의 빨래건조기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290여 명 노동자들의 소리였다. 극우당인 국민전선(FN)의 대선 주자였던 마린 르펜이 나타나자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마린 르펜은 프랑스의 국경을 닫고, 프랑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같은 시각 엠마뉴엘 마크롱은 미리 짜여진 일정에 따라 근처 회의실에서 간부들과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린 르펜의 깜짝 등장 소식을 듣고 그도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으로 즉각 달려갔다. 하지만 자신의 고향인 아미앵에서 국민들의 야유와 조롱에 휩싸여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크롱은 프랑스의 국경을 닫을 수는 없다며 묵묵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경을 폐쇄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 젊은 경제 전문가는 교과서처럼 대답했다.

■ 월풀의 폴란드 이전(délocalisation) 결정

미국계 제조업회사 월풀은 2017년 1월 24일 아미앵의 제조 공정을 2018년 6월 1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생산공장을 폴란드의 한 도시로 옮긴다고 덧붙였다. 월풀의 관계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곳은 인건비가 프랑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월풀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줄 기업체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미앵의 월풀 공장에서는 연간 30만 내지 50만 대의 고급 제품을 생산해왔다. 이는 월풀의 근처 생산기지인 영국 예이트(Yate) 지역에서 연간 90만 대를 생산하는 데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물론 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고급 제품이 아니다.

경기침체 때문인지 월풀은 아미앵에서만 연간 7백만 내지 천만 유로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까지 해당 공장의 책임자였던 라바엘 델루(Raphaël Delrue)는 아미앵 생산지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는 2002년에 1,300명에 달했던 해당 공장의 직원을 현재 고용인원인 290명으로까지 줄였다. 2015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 제프 페티그(Jeff Fettig)는 3천만 내지 4천만 유로라는 거금을 아미앵에 투자했다. 이는 생산과정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대표이사 제프 페티그는 르 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아미앵의 공장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쨌든 아미앵의 생산시설은 여전히 유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미앵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번 폐쇄발표 전부터 월풀은 정규직 자리의 공백을 채우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자리도 차차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 사이에는 발표 이전부터 공장 이전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 프랑스 공장 이전의 진실

2013년 6월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4.2%의 회사들이 적어도 한 사업분야를 프랑스 국경 밖으로 이전했다. 프랑스 통계청의 조사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곳이었다. 이로 인하여 3년 사이에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매년 약 6,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물론, 전체 일자리 수에 비하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비율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 공장 하나를 둘러싼 업체들의 경제적 이익은 연쇄적이다.

■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프랑스 공장 이전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전 장소가 유럽 내의 다른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그 이전 조사의 대상 기간이었던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공장 이전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었던 점과 차이가 드러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장 이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실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공장 이전의 목표는 생산비용의 맹목적인 절감에만 있지 않다. 이는 주요 이전 장소가 개발도상국이기는보다는 유럽 내 다른 국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공장 이전을 한 회사 중 55%는 유럽 내 이전을 선택했다. 24%의 회사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는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와 중국으로 이전했다는 회사도 각각 18%였으며, 북미지역으로 이전한 비율도 8%였다(통계 수치를 더하면 123%가 되는데, 이는 복수 이전으로 복수 응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리적 경제적 여건 외에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있다. 바로 비빌 언덕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점이다. 공장 이전을 한 회사 중 94%는 다국적회사인데, 73%의 회사는 자신의 그룹회사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 갔다. 물론 35%의 이전은 그룹 활동

이 없는 지역으로의 모험을 선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회사를 이전 시킬 경우에 부각된다. 자회사 이전의 경우 대부분 다른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했다. 특히 연구소나 기술지원과 같이 부수적 활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85%가 이미 계열사가 활동 중인 지역으로 이전했다.

■ 그들은 왜 가는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 때문으로, 역시나 비용은 가장 큰 이전의 동기이다.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유럽으로의 이전을 선택하는 이유이다. 앞서 본 월풀의 이전도 프랑스의 최저임금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3유로라는 폴란드의 최저임금이 가장 큰 이전의 동기였다. 물론, 인건비가 더 싼 인도를 두고도 동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인건비뿐 아니라 다른 비용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도 고려된다.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이나 인도로의 이전이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여러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용역에 관한 품질의 불확실성은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로의 이전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다. 소비지에서 멀다는 점도 한몫 한다. 운송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 또는 행정에 관한 여러 숨은 장애물이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불안, 경제적 변동성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으로 가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기업들이 중국 이전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하청업체들이 생산비밀을 빼돌리는 것을 유럽만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세 문제는 점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또한 널뛰는 환율 문제도 기업들의 크고 작은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한 예로 브라질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3%의 환율 변동이 있었다.

■ 유럽 내 공장 이전 막을 수 없는가?

유럽 내 공장 이전은 사회적 덤핑 현상 중 하나이다. 유럽 내 이주 노동자 문제와 유럽 내 공장 이전은 사실 비슷한 맥락에 있다.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외국 공장에 대해 무턱대고 과세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나 슬로바키아에서 프랑스 자동차를 생산해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를 정말 취하고 싶다면, 일단 영국처럼 유럽연합 탈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마크롱 정부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유럽 국가 간 공장 쟁탈전

유럽 국가 사이에서 공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는가? 당연히 있다. 각국의 정치인들은 호수 위의 백조처럼 공장 이전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공장 이전 전쟁의 시초는 1990년대의 ‘후버(Hoover) 사건’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바로 디종(Dijon)에 위치했던 후버의 공장을 영국에서 빼앗아간 사건이다. 알다시피 유럽의 실업률 문제는 노동의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계속되어 왔다. 90년대 영국의 실업률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여전히 오늘날과 같이 높았다. 미국계 가전업체인 후버사가 영국 북부로 공장 이전을 선언했을 때, 이 발언은 바로 양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생산기지를 한곳으로 집결시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후버 측의 이전 사유였다. 그들은 이 조치로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이야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미한 임금 격차를 이유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근로자들을 저임금경쟁에 몰아넣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춰졌다. 해당 공장 이전으로 1993년 7월부터 1994년 5월 사이에 디종의 노동자 중 약 620명이 해고를 당해야 했다. 이 중 470명은 진공청소기 생산에 특별히 기술을 익힌 숙련 공이었다. 그들의 일자리는 진공청소기가 지나간 것 마냥 말끔하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후버 사건’으로 종종 프랑스 사회에서 회자되곤 한다.

■ 세계화의 위협과 노동자의 양보

공장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경을 막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가? 물론 있다. 바로 그것은 노동자가 양보하는 것이다. 어찌겠는가? 자본에는 국경이 없지만, 노동자에게는 가족과 집이 그곳에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본 연구원에서 2004년에 이미 소개한 바 있다.

“7월 19일 프랑스 리옹(Lyon) 근교의 Venissieux에 있는 독일계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보쉬(Bosch) 공장에서,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체 820명의 노동자 중에서 82%가 공장이 체코로 옮겨가는 것을 방치하느니 계약을 수정해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보쉬측은 근로시간 연장을 통해 비용을 12% 절감하는 대신, 신규 디젤 분사 시스템을 노동비용이 40% 낮은 체코로 이전하지 않고 Venissieux에 계속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근로시간 연장으로 보쉬측이 2008년까지 감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300여 개의 일자리 중 190개가 보존되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1,000여 개 소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기업들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쉬 공장 노동자들의 다수를 대표하는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이번 근로시간 연장 합의에 찬성하였으나, ‘일회성 문제 해결 방침(one-off solution to a one-off problem)’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경영자들이 이 협약을 참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근로시간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나 효력을 계속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서, 근로시간단축법이 실제로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¹⁾

1) 한국노동연구원,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Bosch) 공장 근로자들 근로시간 연장 합의, 2004년 해외노동동향.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일회적인 것에서 마크롱에 의해 법률로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다. 그리고 이번 마크롱 정부는 이를 원칙으로 삼고, 노동자의 양보를 자본의 흐름과 이름으로 얻어낼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 공장 재이전(relocalisation)

역시나 보쉬의 이야기이다. 독일계 제조회사인 보쉬는 공장 이전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 그들은 유목민과 같은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장 재이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장 재이전은 공장 이전과는 구분되는 용어이다. 공장 이전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 빠져나가는 문제라면, 공장 재이전이란 다시 공장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야 국적을 버렸다가 돌아온다고 하면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지만, 법인은 여전히 환대를 받는다.

2016년 12월 보쉬는 테러로 악명을 떨친 지역인 생상드니(Seine-Saint-Denis)로 자신의 제조공장 중 하나를 옮겨왔다. 보쉬는 터키에 있던 자신들의 온수기 제조공장을 파리의 북부 지역으로 가져왔다. 해당 보일러는 이제 “ELM Leblanc”이라는 상표를 달고 팔려나가고 있다.

생상드니 지역이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인건비는 터키가 여전히 싸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자동생산공정이라는 무기가 있다. 자동생산공정은 전기로 돌아가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의 강국이다. 공장관계자인 로랑 토트라(Laruent Tortrat)의 인터뷰에 따르면 운송비용이 이번 재이전 결정에 제법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운송비용을 줄인다는 말이 아니다. 운송기간을 줄일 경우 생산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상드니 공장에선 우선 2017년에는 연간 6만 대의 온수기가 생산될 것이고, 차후 연간 8만 대까지 생산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생상드니 지역의 특히나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프랑스 정부는 이번 재이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이번 재이전으로 직접 고용된 사람은 10명이 되질 않는다. 물론, 올랑드 정부에는 주요 실적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 공장 재이전 허구인가? 현실인가?

현재까지 공장 재이전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항공이나 자동차제조업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많은 하청 부품 제조업체들이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PSA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그룹(Peugeot Citroën Automobiles)만 하더라도 50%는 프랑스 내에, 90%는 유럽 내에 부품 공급업체를 두고 있다.

■ OECD의 2016년 공장 재이전에 관한 보고서

그렇다면 공장 재이전의 전망은 어떠한가? 공장 이전에 관해서 가장 활발한 정책을 펼쳐온 곳은 미국이었다. 결과는 트럼프가 챙기고 있지만, 재주는 오바마가 부렸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현재 미국의 최저 실업률을 이끈 것은 오바마 정부이다. 오바마 정부는 두 번째 임기에서 제조업의 재이전을 촉진할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세웠다. 2011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의 대기업은 2년 내에 미국에서 고용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2013년 같은 컨설팅 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20년까지 공장 재이전을 통해 250만 내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의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영국은 경제의 재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독일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역시나 올랑드의 프랑스 정부는 논의에서 뒷전에 있었다. 어쨌든 프랑스 정부 역시 재이전에 호의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 무엇인가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OECD의 해당 보고서는 공장 재이전이 현실화시킬 여러 긍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긍정적 요소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인건비는 연간 15~20% 정도 증가했다. 2015년엔 9%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2000년 미국의 인건비 증가는 2%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생산자동화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생산과정

은 자동화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자동화로 인해 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장에서의 로봇의 사용비율과 공장 이전 비율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로봇을 사용할수록 굳이 싼 인건비를 찾아 나갈 이유도 사라지고, 싼 인건비만 보고 이전한 공장이라면 돌아올 유인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 밖의 부수적인 이유로, 공장 이전에서의 기타 비용 과소평가, 생산-연구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혁신역량 강화,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 증가 등이 있었다. 또한 생산유연성이 재이전의 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유연성이라 함은 단지 수요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빨리 대응하는 것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는 유리한 환율 환경과 셰일가스 채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가 감소가 재이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한다.

■ 맺음말

마크롱의 열린 프랑스인가? 르펜의 닫은 프랑스인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2017 프랑스 대선 핵심주제는 바로 이 노동 국경의 문제였다. 공장 이전을 막아 당장 수백 명의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수백 명쯤은 희생시켜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재이전의 바람은 어쨌든 프랑스에도 썩 불리해보이지는 않는다. 또 대선 결선투표가 있기 직전인 ‘실업자 제조업자 월풀(Whirlpool fabrique des chômeurs)’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위도 막을 내렸다. 언론의 집중포화 덕분인지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찾아냈다.

하지만 제2의 월풀 노동자는 계속해서 마크롱 정부에 의해 생산될 것이다. 마크롱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지킨 대가로 그들의 삶을 르펜보다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2022년 대선 결과에서 우리는 그의 공약의 이행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2013년 6월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09~2011년 사이 공장 이전에 관한 통계 자료,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1281310>
- 월풀의 공장 이전에 관한 르몽드 기사,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7/01/24/whirlpool-lance-la-reorganisation-de-son-usine-d-amiens_5068148_3234.html#voK46ybKGIYRIsYI.99
- 보쉬 사의 생드니로의 공장 재이전과 르몽드의 평가 기사, http://www.lemonde.fr/economie-francaise/article/2016/12/12/bosch-relocalise-sa-production-a-drancy-son-voisin-delocalise_5047547_1656968.html#OuFf8hIpT0iMV5H3.99
- 공장 재이전의 장점에 관한 에코 기사, <https://business.lesechos.fr/entrepreneurs/internationaliser-exporter/comment-la-relocalisation-devient-une-opportunite-pour-les-entreprises-110710.php>
- 2016년 OECD의 공장 재이전에 관한 보고서, http://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la-relocalisation-mythe-ou-realite_5jm3tqx59bhd-fr
- OECD 통계에 관한 에코 기사, https://www.lesechos.fr/12/06/2013/LesEchos/21455-013_ECH_delocalisations---l-insee-tord-le-cou-aux-idees-recues.htm#UWVVIqjrKCpb5VuKK.99
- 월풀과 노동자 단체의 협상 타결에 관한 르몽드 기사, http://www.lemonde.fr/emploi/article/2017/05/05/fin-de-la-greve-a-l-usine-whirlpool-d-amiens_5123291_1698637.html